

2026년 7월, 출범 확정 제물포구·영종구 서구·검단구		보 도 자 료		이제는 인천입니다 2025 APEC INCHEON
배포일자		2024년 5월 7일(화) 총 2매		
담당 부서	토지정보과	담당자	• 공간정보활용팀장 문원기 ☎440-8936 • 담당자 임지현 ☎440-8938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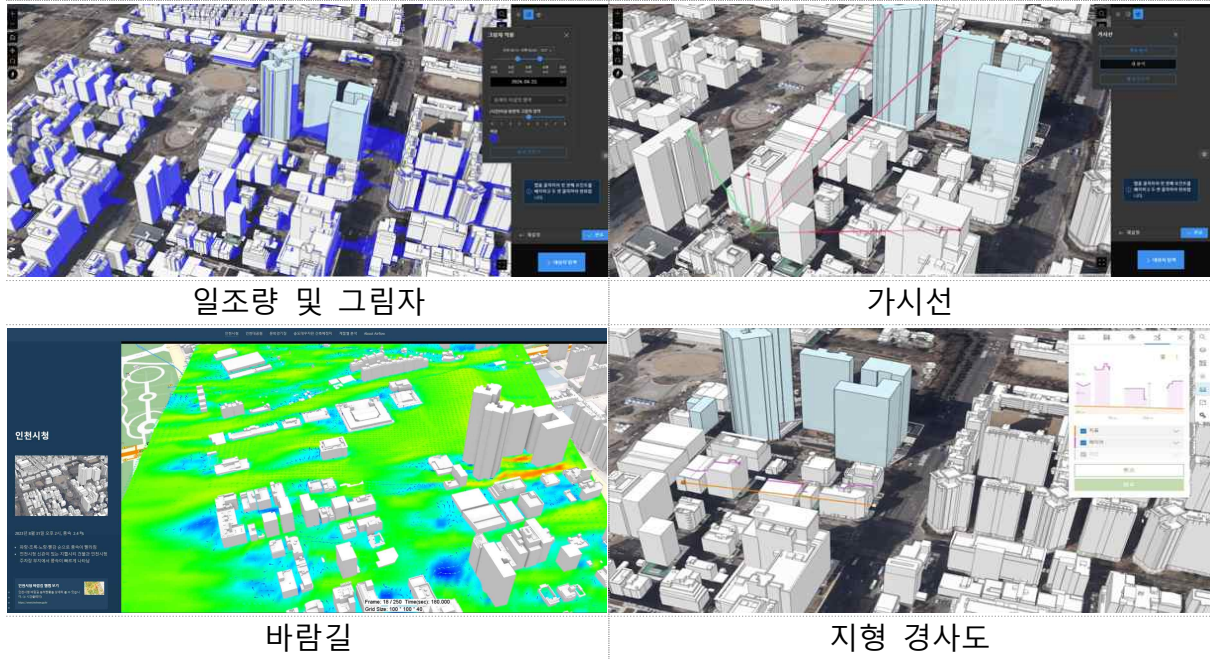
인천시, 디지털트윈으로 도시개발 의사결정 돕는다 - 디지털트윈 기반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내달부터 서비스 개시 -

인천시에서는 이달부터 경관심의·도시계획심의·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의사결정 시, 주요 쟁점에 대해 능동적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디지털트윈 기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트윈 기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도시의 각종 개발계획을 360° 모든 방향에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3차원 공간정보로 시각화할 뿐만 아니라 일조권·가시선·바람길·지형 경사도 등의 공간분석 정보도 제공한다.

인천시는 그동안 공간정보플랫폼을 통해 해당 위원회에서 시각화가 중요한 안전에 대해 개별 건으로 3D 콘텐츠를 구축해 왔지만, 이번에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안전에 관한 데이터 연혁관리가 가능해졌으며 더 많은 공간분석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 진행 중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개발계획(건물의 위치·높이·너비 등) 변경에 따른 디지털트윈 시각화 시뮬레이션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져 안전을 더욱 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디지털트윈 행정을 도시계획 및 개발 분야에 적극 도입해, 일명 ‘왕릉 뷰 아파트’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측·예방하고 나아가 다양한 도시 정보를 디지털트윈에 연계해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인 정책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 행정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디지털트윈 행정이란?

정밀한 로컬데이터와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입체적인 디지털 가상도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시 환경변화에 따른 효과와 문제를 예측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행정에 투영함으로써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예방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본 시스템이 각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 사용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디지털트윈 행정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